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2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2기

제1강  
9월 20일(화)  
오후 7시-9시

# 티무르와 중앙아시아



강사: **김중순** 교수

계명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학위를, 짜르부뤼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로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제 저널 *Acta Koreana* 와 *Acta Via Serica*의 편집장을 겸하고 있다. 샤머니즘을 비롯한 고대종교와 문명교류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Birdman: Pathfinder of Korean Shamanism*, 『문화의 이해와 다문화교육』, 『이슬람, 그 반역의 역사』, 『황으로 읽는 문명 이야기: 중반구와 글로벌 르네상스』 등이 있다.

중앙아시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티무르(1336~1405)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그는 14세기 후반 몽골이 쓸고간 중앙아시아에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하여 사마르칸트에 도읍을 정하고 동서 차가타이 한국·일 한국을 병합하였으며, 킵차크 한국과 북인도까지 정벌했다. 이어 소아시아 방면에서 일어난 오스만 튀르크를 앙카라에서 격파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가 죽은 후 제국은 분열이 되었고, 결국 우즈베크족의 침입으로 1500년에는 사마르칸트가 함락되고, 곧이어 헤라트도 함락됨으로써 티무르 제국은 150여 년의 역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크다. 승승장구하며 공포의 존재로 여겨지던 오스만 튀르크를 패퇴시킴으로써 유럽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고, 소위 티무르 신화를 남김으로써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티무르가 당시 문화예술과 과학에 기여한 바는 중앙아시아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건국왕 태조 이성계와 동시대 인물로, 세종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와 한반도의 문화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다.